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옛 선비의 영혼을 만난다

글_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정민(鄭珉, 48) 교수. 독자들 중에는 아마도 '정민'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해지고 아득해지는 경험을 했으리라. 옛 선비의 영혼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감동을 전달해주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수없이 밀려드는 외부 강의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데는 1초라도 책 읽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이다. 때문에 그의 육성을 듣고 싶은 독자들에게는 정민 교수 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어서 그가 만난 옛사람의 영혼을 함께 누리는 건 양보하고 싶지 않은 즐거움일 수밖에.

정민 교수가 한시에 흥겨운 가락을 붙여 구성지게 불렀다. 힘이 느껴지는 음색은 보통 내공이 아니듯 싶다. 고등학교 때, 한문 선생님께서로부터 성조를 붙여 한시를 배웠던 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르간을 쳐보면서 한시에 음을 붙여 교과서에 나온 한시는 모두 외웠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그는 한양대 국문과에 입학해 문학 동호회를 만들기도 했다. 대학원에 다닐 때까지 창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던 그조차도 고전문학을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정민 교수는 《한시 미학산책》《정민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이야기》《꽃들의 웃음판》을 통해 한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해왔고, 도교적 상상력의 문제를 다룬 《초월의 상상》, 새의 기호학적 의미를 문학과 회화 작품을 통해 읽어본 《한시 속의 새, 그림 속의 새》 등 다양한 지적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시이불과 논어병풍》《들 위에 새긴 생각》《와당의 표정》《목릉문단과 석주 권필》《마음을 비우는 지혜》《죽비소리》《스승의 옥편》에 이어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사유와 지식영역을 정리한 《비슷한 것은 가짜다》《미쳐야 미친다》《다산선생 지식경영법》까지. 정 교수 문필의 방향은 18세기의 텍스트 해석을 넘어 문화사적으로 중심을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옛사람과 만나는 일,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게 나는 또, 한 영혼을 내 속에 간직한다.”

올 봄에 1997년 대만에 교환교수로 갔을 때부터 지난해 미국에 안식년을 다녀온 10년간 쓴 글을 묶어 《스승의 옥편》이라 이름 붙여 세상에 내보냈다. 《스승의 옥편》에서 담담하게 고백했듯이, 정민 교수가 한문 공부를 시작한 것은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이다. 처음으로 이기석 선생

님을 만나 작고하실 때까지 8년을 모시고 한문공부를 했다. 스스로 한문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는 스승에게 혼쫓이 나면서 민중서립관 《한한대자전》이 반 이상 말려들어갈 정도로 한자를 찾고 또 찾았다. 《한한대자전》은 정민 교수가 한문학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마니아층을 만들게 한 스승의 옥편이다.

그가 10여 년을 18세기에 미친 까닭은 <조선 후기 고문론 연구>를 주제로 박사논문을 준비하면서부터이다. 고문론이란 조선시대의 문장이론을 의미한다.

“연암의 글은 한 군데 못질한 흔적이 없는 데도 꼭 짜여져 빈틈이 없다. 그의 글은 난공불락의 성채다. 방심하고 돌진한 장수는 도처에서 북병과 만나고 미로와 만나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의 서문에 밝혔듯 1992년 7월 27일에 책갈피에 써둔 메모를 보더라도 그가 얼마만큼 연암을 흠모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인물까지 모두 알고 싶기 마련이다. 정민 교수도 그렇게 관계 맺기를 이어나갔다. 연암 박지원이 살았던 18세기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하기 시작했고, 이덕무, 다산 정약용 등 18세기 지식인들을 섭렵했다. 18세기 조선지식인이 경험했던 정보화 사회가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야말로 연구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한다. 창작을 위해 시집을 읽고 습작했던 경험들은 18세기의 언어를 번역하고 표현을 매만지질 때 큰 힘으로 작용한다.

그는 “오늘날 논술이나 글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침착지도나 요령만 가르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산의 독서법을 가르쳐준다.

“다산의 독서법은 선경후사예요. 경전을 먼저 읽고 역사를 나중에 읽으라는 뜻이지요. 경전을 먼저 읽는다는 것은 동서남북을, 역사는 전후좌우를 아는 거예요. 동서남북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불변의 방향이지만 전후좌우는 내가 서있는 지점에 따라 달라져요. 즉 불변의 가치를 경으로써 세우고 그 다음에 역사를 통해서 적용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론과 적용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